

신북방경제실/아프리카중동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4.24.

1. 확산 동향

- 2020년 4월 24일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35명, 사망자 수는 408명으로, 3월 말 대비 확진자는 약 10배, 사망자는 약 21배 증가함.¹⁾
 - 국가 중에서는 남아공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고, 최근 카메룬, 가나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짐.
 - 남아공의 경우 3월 말(3월 26일) 대비 확진자가 약 6배 증가하였으며, 카메룬은 18배, 가나는 17배 증가
 - 아직까지 확진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0일간 확진자수 증가율은 여타 지역에 비해 현격히 높은 등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²⁾
 - 2월 말 나이지리아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코로나19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7개 국 전체로 확산됨.

표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진 현황 (2020. 4. 24. 14시 기준)

	국가	확진자	사망자
1	남아프리카공화국	3953	75
2	카메룬	1334	43
3	가나	1154	9
4	코트디부아르	1004	14
5	지부티	986	2
6	나이지리아	981	31
7	기니	862	6
8	니제르	671	24
9	부르키나파소	616	41
10	세네갈	479	6
11	콩고민주공화국	394	25
12	모리셔스	331	9
13	소말리아	328	16
14	케냐	320	14

1) 북아프리카(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제외 수치

2) Oxford Analytica(2020.4.2), "Africa may face uncontrollable COVID-19 crisis" (검색일: 2020.4.3).

15	말리	309	21
16	탄자니아	284	10
17	콩고공화국	186	6
18	수단	174	16
19	가봉	167	2
20	르완다	154	0
21	마다가스카르	121	0
22	에티오피아	116	3
23	라이베리아	101	8
24	토고	88	6
25	적도기니	84	1
26	카보베르데	82	1
27	잠비아	76	3
28	우간다	74	0
29	시에라리온	64	1
30	베냉	54	1
31	기니비사우	50	0
32	모잠비크	46	0
33	에리트레아	39	0
34	말라위	33	3
35	차드	33	0
36	에스와티니	31	1
37	짐바브웨	29	4
38	앙골라	25	2
39	보츠와나	22	1
40	나미비아	16	0
4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6	0
42	부룬디	11	1
43	세이셸	11	0
44	감비아	10	1
45	모리타니	7	1
46	남수단	5	0
47	상투메 프린시페	4	0

자료: Johns Hopkins,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검색일: 2020.4.24)

2. 경제적 영향

- (원유 수출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가 하락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수출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 원유 수출국은 약 6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³⁾
- (남아공)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남아공은 코로

3) UN (2020.03.16.) ECA estimates billions worth of losses in Africa due to COVID-19 impact. (검색일: 2020.04.23.)

나19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경기진작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불가피해보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2020/21 회계연도 기준 재정적자는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⁴⁾
-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남아공을 투자적격으로 분류했던 Moody's가 재정여력(fiscal strength) 악화, 저성장, 경제·재정정책 효율성 악화를 이유로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Baa3)에서 투기등급(Ba1)으로 강등⁵⁾
 -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 및 순자본유출 증가가 우려되며, 이미 3월 한 달 간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본 유출액이 17억 5천만 달러에 달함.⁶⁾

□ (중부아프리카) 원자재 및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은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들은 원자재 수요 감소, 관광 감소 등으로 인해 2020년 저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재정 및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콩고, 적도기니, 가봉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⁷⁾

□ (부채 위기) 2019년 기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7개국 중 38개국이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⁸⁾

- 아프리카 재무장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중 440억 달러는 차관에 대한 이자 면제로 충당 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함.
- 그러나 선진국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자 상환 중단 외에 추가 자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채탕감도 저소득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앙골라, 잠비아 등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득국은 부채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음.⁹⁾

4) IHS Markit(2020.4.15), "South African central bank cuts policy rate by further 100 basis points"(검색일: 2020.4.16)

5) Moody's(2020.3.27), "Rating Action: Moody's downgrades South Africa's ratings to Ba1, maintains negative outlook"

6) World Bank Group(2020. 4), Africa's Pulse Volume. 21, p.2,45

7) IHS Markit(2020.3.31.), "Central African regional bank lowers policy rate to 3.25% in response to COVID-19 virus outbreak" (검색일:2020.4.1)

8) World Bank Group(2020. 4), Africa's Pulse Volume. 21, p. 84.

9) Oxford Analytica(2020.4.9.), "COVID-19 could precipitate a new African debt crisis" 온라인자료 (검색일: 2020.4.10)

3. 정부의 대응

□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및 중부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발표함.

○ **(남아공)** 남아공 중앙은행(SARB)은 금리를 추가 인하 하였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동제한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GDP의 10%에 달하는 5,000억 랜드(2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¹⁰⁾

- SARB는 4월 14일 2020년 들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현재 기준금리는 연초 대비 225bp 하락한 4.25%임.

- 총 500억 랜드 규모의 코로나 수당(Coronavirus grant)을 신설하여 향후 6개월 간 기존 수혜자의 사회 수당(social grant)을 일시 증액하는 한편,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 실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수당 지급

- 현재까지 실업보험기금을 통해 60만 명의 노동자에게 이미 16억 랜드(8,37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자리 보전 및 신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가로 1,000억 랜드(52억 달러) 지원 예정

-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억 랜드(1,57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0억 랜드(106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loan guarantee scheme)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70만 개 기업 3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억 랜드(1억 달러)의 예산 편성

- 3월에 발표한 원천징수(PAYE) 세액 감면 규모를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 기준도 연매출 5,000만 랜드(약 260만 달러)에서 1억 랜드(520만 달러)로 상향 조정

- 보건 분야에 200억 랜드(10억 달러)를 지원하고, 방역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200억 랜드(10억 달러) 지원

○ **(나이지리아)** 수도 및 대도시를 일시적으로 봉쇄 조치하는 한편, 고용 지원 및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고, GDP의 2.4%에 상당하는 총 3조 6,00억 나이라(92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함.

- 질병관리본부 운영에 9억 8,400만 나이라(270만 달러) 지원

- 5,000억 나이라(14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채용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

10) 5,000억 랜드 중 1,300억 랜드는 기존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 남아공 대통령실 (2020.4.21.), "Statement by President Cyril Ramaphosa on further economic and soci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epidemic" (검색일: 2020.4.23)

- 계약회사 대상 수입관세 면제 정책을 도입
 - 통제 유가를 하향조정하고 유가보조금 철폐를 추진
 - 보건 분야에 약 1,000억 나이라(2억 8천만 달러), 제조업 부문에 2조 나 이이라(51억 달러), 타격을 입은 산업 실물 부문에 1조 5,000억 나이라 (38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분야에 대한 대출 구조조정 허용
 -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식 환율 15% 하향조정
- **(앙골라)** 앙골라는 4월 25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한편, 4,0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비석유기업 및 가게 지원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앙골라 중앙은행(BNA)은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를 시행함.¹¹⁾
- 정부는 인도적 지원금과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특정 수입품에 대한 세금 신고 지연을 허가
 - BNA는 정책금리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초단기 유동성조절에 활용되는 7일물 영구 유동성 흡수채(7-day permanent liquidity absorption facility) 이자율을 3%p(10%→7%) 하향조정
 - 시중은행에 GDP의 0.5%에 달하는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1억 8,6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증권을 매입할 예정
 - BNA는 또한 시중은행이 수출촉진에 기여하는 분야에 대출해준 금액만큼을 지급준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 여신금융기관이 3월 30일부터 대출자에게 60일간의 채무보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필품 및 의료용품 생산 촉진을 위한 최소 신용할당 기준을 시중은행 순 자산의 2%에서 2.5%로 상향조정
 - 외환 경매시 환율을 외환시장 균형환율로 조정하여 시장 충격을 흡수
- **(케냐)** 정부는 격리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보건 분야 지출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전담 치료 시설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케냐중앙은행(CBK)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발표함.¹²⁾¹³⁾¹⁴⁾

11) IMF (2020.04.16.), "Policy Responses to COVID-19" (검색일: 2020.04.23.)

12) The East African(2020.4.20.), "Kenya sets up facility to treat health workers as cases rise to 281" (검색일: 2020.4.23)

13) 케냐중앙은행(2020.3.24.), "Additional Emergency Measure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n the Banking Sector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 CBK는 2020년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4월 현재 기준금리는 연초 대비 125bp 하락한 7.25%임.
 -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352억 케냐실링(3억 3,0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에 따라 각 은행에 지원
 - 예금지급준비율을 100bp 인하(5.25%→4.25%)
 - 환매조건부채권의 최대 만기를 기존 28일에서 91일로 연장
 -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신용등급 분류 기준 완화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환이 연장되거나 구조조정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 비율 완화
 - 이러한 CBK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업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개인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 구조조정 검토
 - 현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송금 수수료를 면제
- (에티오피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선을 연기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예산을 책정하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도입함.
- 보건 분야 강화를 위해 1억 5천 4백만 달러(GDP의 0.15%) 가량의 예산을 책정
 - 정부는 16억 4,000만 달러의 자금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를 위해 6억 3,500만 달러 △확산 심화 시 보건 분야 대응을 위해 4억 3,000만 달러 △긴급 대피소 및 식품 외 물자 보급을 위해 2억 8,200만 달러 △농업 분야 지원, 취약계층 보호, 물류, 교육 지원, 난민 지원과 현장관리 지원 등에 2억 9,300만 달러 지원
 - 수입품 소비 억제를 위해 국산품에 대한 세금 면제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주요 상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민간 은행에서 필요한 경우 대출자에게 재융자와 채무 면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제공
-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앙은행(BCEAO)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회원국 내 민간기업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전자화폐 사용을 장려함.¹⁵⁾

14) 케냐중앙은행(2020.3.18.), "Emergency Measures to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Effects on Bank Borrowers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15) BCEAO는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회원국인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토고의 통화정책을 결정

- 3,400억 세파프랑(5억 6,000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추가공급 (현재 유동성 총 4조7,500억 세파프랑)
 - 시중은행이 재융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1조 500억 세파프랑(17억 달러) 추가 공급하였으며, BCEAO가 선정한 1,700개 기업이 혜택 수혜 가능
 - 긴급 투자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을 위해 서아프리카개발은행(BOAD) 신탁기금에 250억 세파프랑(4,000만 달러)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 은행신용장 재융자 특별 프로그램 조성
 - 대면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 기업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실시하여 전자화폐 사용 진작을 도모하고, ATM에 충분한 화폐를 공급
- (중부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중앙은행(BEAC)은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 회원국들의 경제적 충격 및 금융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¹⁶⁾
-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고(3.5%→3.25%), 한계대출금리 역시 100bp 인하(6%→5%)
 - 유동성 공급 규모를 기존 2,400억 세파프랑(4억 달러)에서 5,000억 세파프랑(8억 달러)으로 상향 조정
 - 일시적으로 재정규율을 완화하여 회원국들의 담보부 차관(loan securities) 상황을 연장

4. 기타

- 아프리카 정부들의 가용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 테러 등 코로나19 이외의 문제들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회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에티오피아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총선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선거 일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격화 가능성 존재¹⁷⁾

16) BEAC은 CEMAC 회원국인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적도기니, 가봉, 콩고공화국의 통화정책을 결정

17) Reuters (2020.04.01.) "Ethiopia postpones August election due to coronavirus." (검색일: 2020.04.13.)